

## 어린이 책꽂이



▲똥을 써는 도서관=만성변비로 날마다 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주인공 '변두배'. 도서관에서 변비를 해소한 통쾌한 경험을 겪은 이후 자신도 모르게 책 읽는 재미에 빠져든다. 작가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도서관에 가면 똥이나 오줌이 마려운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책 읽는 재미를 전한다. <미래아이·9천원>



▲거상 김만덕=정직하게 벌고 아낌없이 나누었던 진정한 부자 거상 김만덕. 그녀는 기생이라는 비천한 신분에서 꿈에 대한 강한 의지와 용기로 신분과 성차별, 오짓 억경을 극복하고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으로 거듭난다. 김만덕의 파란만장한 삶과 함께 조선시대의 경제상황에 초점을 맞춰 있어 유익하다. <살림아린이·9천500원>



▲왜 아辱까?=과학과 친해지는 책 시리즈 7권. 작가 권재원씨가 소아과 전문의 신순문씨의 감수를 받아 우리 몸이 병이 나면 왜 아辱지 알게 하고 아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아풀 때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등을 들려준다. <창비·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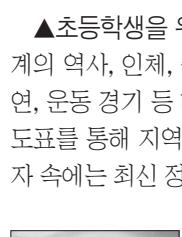
▲예온이~마음으로 연주하는 아이=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기적을 보여준, 앞을 보지 못하는 피아니스트 예온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교생활을 하기까지 예온이와 가족들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는 희망과 용기가 있다면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사실을 전한다. <글고은·8천800원>



▲모차르트를 위한 질문=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유대인 대량학살 문제를 음악으로 풀어낸 동화. 유대인 수용소에서 나치의 강요로 모차르트곡을 연주했다가 생존해 돌아온 이후 다시는 모차르트곡을 연주하지 않았던 음악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내가 왜 이럴까요?=이간 내 얘기 두 번째 권.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주인공 루카스를 통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주위 사람들을 정신 없게 만드는 루카스는 결국 의사 선생님을 찾 야 간다. 어른들에게는 이해를, 아이들에게 공감과 격려를 준다. <예꿈·8천500원>



▲초등학생을 위한 자신만만 지식사전=우주, 지구, 생명과학, 세계의 역사, 인체, 종교와 사상, 언어와 문화, 교육과 예술, 음악과 공연, 운동 경기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상세한 목록과 도표를 통해 지역별 차이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글상자 속에는 최신 정보를 담았다. <주니어김영사·2만8천원>



▲얼룩말 자바에게 배우는 창의력=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한 마리씩을 등장시켜 평생의 습관이 될 가치를 훈련하는 Values 시리즈 1권. 창의력 편으로 얼룩말 자바가 주인공이다. 평범한 한 마리의 흑백 줄무늬 얼룩말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며 만들어내는 상상력과 창의력에 관해 재미나게 풀어썼다. <맑은기쁨·9천원>

## 효성공인증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 임야(농장·묘지작합)

-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

- 매가 1억3천만원

## \* 독서실 임대

-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 인근

- 고시화원내 독서실 170평

- 보1억5천만 원390만원

## (관리비 포함)

\* 빌딩(임대용·투자용)

- 토지 244평 건평 393평

## (병원·사무실적합)

- 매가 19억

- 보증금 1억6천만 원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중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금매물 즉시 증가

##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 02-223-1772 월·화·수 10:00-18:00

(광주은행 신분증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접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소부지구함

##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 용 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 확인 된 곳.

##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 위 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 매장면적 : 150-350평

## ■ 임대 및 매수 가능.

##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 가능

(주) 땅심

TEL : 010-3616-8698

## 자본, 그들은 역사를 어떻게 소유해왔는가

## 제1권력

히로세 다카시 지음



제2차 세계 대전, 케네디 암살, 석유파동, 원·수풀의 개발과 투자, 유럽의 핵 배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 1950년대 미국은 물론 세계의 금융계를 장악한 미국의 거대 재벌이다. 롤러 가는 J.D. 롤러가 설립한 석유회사에서 시작해 미국 산업계를 좌우하는 세력으로 성장한 가운데 모건 가와 롤러 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가문은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다. 지난 1983년 미국의 매출 베스트 10의 기업의 명단을 살펴보면 그의 주장이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1위 앤슨, 2위 GM, 3위 모빌, 4위 포드, 5위 IBM, 6위 텍사코, 7위 듀폰, 8위 인디애나 스텠더드오일, 9위 소칼, 10위 GE'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유주를 살펴보면 '1위 롤러, 2위 모건, 3위 롤러, 4위 모건-롤러, 5위 모건, 6위 모건-롤러, 7위 모건, 8위 롤러, 9위 롤러'이라는 것이다.

모건 가는 19세기 중반 J.P. 모건 1세가 런던에 설립한 금융회사를 모태로 출발해 미국은 물론 세계의 금융계를 장악한 미국의 거대 재벌이다. 롤러 가는 J.D. 롤러가 설립한 석유회사에서 시작해 미국 산업계를 좌우하는 세력으로 성장한 가운데 모건 가와 함께 미국 경제를 양분하고 있다.

저자는 이들이 미국의 전 분야를 장악해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이들에 맞섰다가 암살을 당할 수 있다고 전한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암살에도 두 가문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배후에 두 가문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가문은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다.

모건 가문은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다.

1962년 모건-롤러연합 계열인 US스틸과 배들레헴스틸이 철강가격 인상을 결정하자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이를 기업에 주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모건상사가 저지를 것으로 추정되는 환율 조작으로 뉴욕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

하지만 케네디가 물러서지 않자 이번에는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암살자를 통해 응징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FBI의 감독관이 에드워드 피어폰트 모건이며, 대통령 특명조사위원회 구성원들도 모건 가문, 롤러 가문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배후에 두 가문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한 미국의 지휘관들 중에도 이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번 두 가문과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헨리 스티븐 육군장관은 JP모건이 설립한 모건상사의 고문번호였고, 아이젠하워 연합군 최고사령관과 포러스를 해군장관, 마셜 육군참모장, 맥아더 장군 등도 모건 가문과 관련된 기업들과 연관 있다.

베트남에 지상군 파병 필요성을 케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등 세계사를 뒤흔든 사건 이면에는 거대한 자본의 힘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한 장면.

네디에게 진언한 당시 로버트 S 맥나리마 국방장관도 모건-롤러 연합체인 포드자동차의 사장이었다.

저자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 맥아서시즘 모두 이 두 가문의 조종을 받았으며, 노벨상과 올림픽조차 이 두 가문의 영향력에

서 자유롭지 않았고 덜번다.

책 부록에 첨부된 노벨상을 받은 사람, 미국 대통령과 각료들이 어떻게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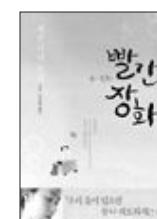
가문과 연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프로메테우스출판사·2만5천원>  
/오픈록기자 kroh@kwangju.co.kr

## 결혼생활의 '진실'은 체념이다

## 빨간장화

에쿠니 가오리 지음



'냉정과 열정사이', '도쿄타워'의 저자 에쿠니 가오리가 결혼에 관한 '진실'을 찾아한 문제와 잔잔하고 나긋나긋한 화법으로 그려낸 연작소설 '빨간장화'로 다시 한 국독자를 찾았다.

결혼하고 10년, 아이가 없는 히와코와 쇼조의 일상은 단편의 형식을 빌려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린 이 작품은 에쿠니 가오리의 능숙한 심리 묘사와 날카로운 관찰력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국작이다.

부부는 오랜 시간동안 함께했지만 특별한 사건이나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은 없다. 일상에서 자신이 보는 세상의 모습을 상대에게 풀어놓지만 언제나 무심한 대답만 오갈 뿐. 독특하고 알 수 없는 쇼조의 행동과 히와코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부부라는 영역을 통해 무엇보다 리얼하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결혼생활의 '진실'은 바로 체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결혼이라는 현실세계에서 두 주인공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 그 어떤 연애소설보다 현실적이고 냉혹하게, 때로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다가선다. 비록 서로 아름답게 섞이지 못하는 불협화음이지만 단조로운 화음보다 매력적인 불협화음을 읽을 수 있다.

<소설·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킬러보다 잔인한 동물 생존기술

## 동물들의 생존게임

마르쿠스 베네만 지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독일의 기자 출신 전문 작가 마르쿠스 베네만은 '지능적이고 매혹적인 동물들의 생존 게임'을 통해 단순한 본능이라고 넘겨보기에는 재치와 지능이 번뜩이는 동물들의 생존 전략들을 소개한다.

낯선 암컷의 향수로 희생자를 유혹한 다음을 가미로 먹잇감을 잡는 불리스거미, 해안 식물에서 맘 놓고 쉬고 있는 먹잇감에게 물총을 쏘는 물총고기, 껍질이 단단한 육지거북을 정복하기 위해 독특한 전략을 고안한 검도수리, 펜스말벌의 죽음과...

특히, 저자는 '동물들의 생존 게임은 형사 범죄의 세계와 놀랄 정도로 닮았다'는 윤간 동물이 생존 디딤을 벌이는 자연에서 인간 사회와 비슷한 잔혹한 풍경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킬러보다 잔인하고 스파이보다 치밀한 동물들의 생존 기술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능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 단순히 암울강식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전략적인 동물의 세계에서 삶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다.

<옹진지식하우스·1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죽음과 육체의 덫없는 이야기

## 우리는 언젠가...

데이비드 실즈 지음

